

제 1 강 :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 서론 /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잠언 29장18절에 보면 “목시(vision)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밥이나 공기를 먹고사는 존재라기보다는 말씀과 비전을 먹고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비전이 없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는 항상 생기가 돌고 의욕이 충만합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어떤 고난과 고통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에게는 볼러야 할 노래가 있고 들어야 할 깃발과 외쳐야 할 구호가 있으며 죽어야 할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려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며 성숙해 집니다.

1. 비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비전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이거나 꿈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비전이 있었습니다(창7:1,5).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창 12:1-3).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3:10).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신의 애국심이나 철학이나 열정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3-17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나 베드로와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어떤 것이며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2. 참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참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을 만들어 줍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것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큼니다.

에스겔 13장 3절에 보면 말씀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말을 하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7절에서도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예언이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여 파멸에 빠지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극도의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다 비전이 아니며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하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합니다.

3. 비전은 고난을 먹고 자란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성숙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 5:10-12). 비전은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야 하는 고난이 있었으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고난이 있었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쫓아내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야만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치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고난 당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스테반과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더욱 분명하게 하며 고난을 통하여 비전은 완성됩니다.

4. 비전은 지도력의 원동력이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보는 만큼 일하고 생각하는 만큼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은 미래를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비전이 큰 만큼 큰 지도자가 되며 강한 만큼 강한 지도자가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은 지도자로 하여금 지도력과 생명력을 갖게 합니다.

지도자는 다수결에 의해 뽑혀지지만 지도력은 비전에 의해 세워집니다. 교회의 비전(교회론과 목회철학)만큼 교회는 만들어지고 교회의 지도자만큼 교회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요, 인간의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늘의 꿈을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